

오늘의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28:5-6

통 권 제 20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4월 8일

함즐함울

www.pcltv.org

나의신앙이야기 -2면 / 부활절 축하편지 -3면 / 세례입교식 -4면 / 영어예배사역팀 2주년 -4면

성금요일 음악예배, "장엄한 예배"



2007 부활절 예수님, 다시 사셨네! -무덤을 이기고 부활신앙의 삶으로...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보내고 부활절이 찾아왔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상징하는 중요한 절기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금요일 저녁부터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3일째 되는 일요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킨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1년에 52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 만큼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다.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절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을 의미한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알리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강한 메시지이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

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눅24:38-41)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 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것이다. 부활은 우리의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신화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지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2007년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김현령 목사

길가에교회 바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원이 필요하다.

일시: 2007.4.21(토) 9:30-17:00
장소: 길가에교회(031-552-2273)

길가에교회가 4월 21일 바자회 "길가에장터"를 열게 된다. 이웃과 함께 나눔 물품을 수집하는데 있어 주님의교회

로 템 나 무

할미꽃 씨앗은 바람타고
-다시 부활절에

제왕의 권좌보다 붉디붉은
자긋빛 불꽃
가슴속 속깊이 속속들이 태운다

땅을 향해 겸손히 낮고 낮게
검불덤불 잿빛 옷 속에
숨어숨어 사룬다

생살 돋우는 봄이여!
꽃!이여

부활의 열정
여리디 여린 풀꽃이여!

큰 키 나무들 잎보다 먼저 움트나니
순백의 씨앗 하늘하늘 하늘 날아간다
먼 곳의 전갈인 듯, 땅끝까지

이희숙(권사, 7-4)

*검불덤불: 한테 열크려져 날날이 보이지 않는



부활절 신앙사경회 / Easter...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이사야 60:1)
일시: 4월 9일~11일 (월~수) 오후 7:30 장소: 대예배실 강사: 김명웅 목사 (장신대 조직신학)

예배의 현장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하늘사랑 받은 너,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월요일 새벽, 늦가을의 쌀쌀함 같은 찬바람이 부는 새벽을 뚫고 성도들이 주님의교회 대예배실로 모였다. 사순절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의 하루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성도들의 발길이 모였기 때문이다.

더 이른 새벽부터 나와 성도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도왔던 봉사부와 차량안내부원들의 섬김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실에 들어왔다.

5시 30분, 차임벨이 울리자 인도자의 인도로 고난의 찬양을 함께 불렀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다. 찬송을 마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성도들은 황폐한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설교전에는 요일별로 준비된 교구연합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졌고 이어 장신대 예배외설교학 교수인 김운용목사의 말씀이 이어졌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우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했다. 성금요일 아침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며 참여한 많은 성도들은 아픔과 감사, 이 함께 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울며 기도하였다. 온성도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매일 6시 40분이 넘어야 끝이 나는 새벽기도회, 기도회가 마치면 부지런히 뛰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떤 이는 회사로, 어떤 이는 가정으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힘찬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특별새벽기도회는 마쳤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하는 거룩한 과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늘 남아있다. 이정애 기자

오늘 기도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와
곁까지 함께 하면
저도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기적 일으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성금요일예배 최종리허설 현장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지난 5일 저녁 7시. 성가대석을 가득 메운 살롬 찬양대원들, 무대중앙에자리를 잡고 악기를 조율 중인 칸티클 챔버 오케스트라, 중앙에서 지휘에 여념이 없는 이동훈 지휘자까지 성 금요일예배를 하루 앞두고 본당 대예배실은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다.

저녁 6시 반,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이 먼저 시작되었다. 띄엄띄엄 성가대석과 본당 앞자리에 자리를 잡은 찬양대원들은 준비된 김밥과 음료수로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규모가 큰무대인 지라 찬양대원들의 얼굴도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다. 7시 반부터 찬양대가 무대로 올라와 오케스트라와 함께 최종 리허설을 했다.

찬양대 단원 현경태(테너)씨는 "지난 1월부터 이번 음악회를 준비해 왔다"며 "주중에도 강도 높은 연습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찬양대원들이 참가해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며 성금요일예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지내며 함께 기도하며 연습한 살롬 찬양대는 지난 성금요일을 기념해 '장엄한 예배'라는 테마로 음악예배를 주관했다. 프랑스 작곡가인 찰스 군드의 작품으로 채워지는 이번 칸타타 공연에는 살롬찬양대의 합창, 칸티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프라노 정태옥, 테너 백정태, 베이스 구성우의 협연으로 진행되었다. 대예배실 1층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들으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겼다.

최사라 기자

- ① 장엄한예배 홍보 포스터
- ② 연습중 잠시 휴식하는 자매들
- ③ 연습에 열중하는 성가대원들



나의/신앙/이야기

부활절 아침에

오랫동안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다. 남편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런 열심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남편을 이해하지 않았다. 나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남편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남편을 힘들게 하면서도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다. 나로 인한 남편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신앙수준은 높아가는데(?) 늘 제자리인 남편이 불만스러웠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의 병과 남편의 회사일로 우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서로의 약한 모습을 겪이지 않고는 견디어 낼 수 없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 성공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매일 매일의 시간 속에서 점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것은 신앙인 이전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였다. 진정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남편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남편의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남편,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을 원했던 것이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내가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위해 달라는 아내를 나의 남편은 참으로 오래 참아주었다. 나보다 남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린아이 같은 내게 울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 남편과 함께 구역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교회봉사로 할 수 있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성숙해지기까지 기다리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사랑하기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것이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함께 있어 주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부활절 아침에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부부의 마음에 새롭게 피어나게 하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엄혜숙(5-18)

1교구 정영환 목사



1교구 가족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부활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경험한 것처럼, 부활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죽음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힘내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편입니다.

2교구 이창현 목사



노란 계란, 빨간 계란 물들이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스티커가 나와서 계란에 붙이니 너무 쉽더군요. 부활절에 얽힌 저의 어릴적 추억입니다.
추억이 없는 삶은 삭막하지요. 추억이 있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추억속에서 믿음에 얽힌 추억, 교회에 얽힌 추억, 신앙생활에 얽힌 추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추억의 수에 비해, 혹시 신앙의 추억은 얼마나 됩니까? 신앙생활의 추억은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만들고, 우리의 믿음살이를 넉넉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추억이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3교구 정희성 목사



사랑하는 3교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는 선포와 같이 2007년 한 해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기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어붙은 땅에 새 생명이 움터오듯 죽음을 넘어 서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을 맡게 되어 여호수아나 솔로몬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교구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부-성자-성령, 3위 일체되신 하나님처럼 목사와 사역자와 교구식구들로 구성된 3교구가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안고 다양함속에 일체감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교구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3교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아침을 바울의 이 고백으로 출발합시다.
“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3교구) 넉넉히 이기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3교구 가족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4교구 신화식 목사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4교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과 희망의 하나님나라로 옮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앞길에 놓인 모든 장벽을 넉넉히 뛰어넘는 4교구 가족들 다 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교육부 정요섭 목사



아기다리 고기다린 예수님의 부활^^
봄을 알리는 개나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화사하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활짝 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된 우리 삶에 부활의 영광으로 피어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흠뻑 취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오늘 여기 주님의교회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교사의 마음과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년부 윤은성 목사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사건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적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서 영혼을 가득히 채우시는 기쁨과 권능의 기쁨부음이 충만한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5교구 우동윤목사



꽃이 피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죽은 듯한 나목이더니
푸릇 푸릇 혈색이 되살아납니다.
봄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나 봅니다.

죽은 나무 십자가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피가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저 아래, 땅만 바라보는 절망에도
하늘만 쳐다보는 병상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이 땅의 갈라진 틈바구니
갈등의 골짜기마다
평화의 꽃,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 몸에도 붉은 피가 돕니다.
우리 마음도
어느새
가득한 꽃밭입니다.

부활의 아침!
교구식구 삼백일곱 가정과,
특별히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하늘나라 꽃바구니 한가득 전합니다.

6교구 박의일 목사



사랑하는 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영광과 능력 가운데 부활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고통과 죄, 사망으로부터 놓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 곧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도록 구원받았습니다(엡 4:24).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만 감격하고 기뻐 환호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앞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음을 자각해야 합니다(롬 6:11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교구 식구들의 개인 실존과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발현되고 확인되는 복된 2007년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교구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7교구 이 호 목사



초대 기독교는 부활교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존재 이유였고, 역동적인 선교활동의 원동력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행1:8). 그들에게는 훌륭한 양육과정도, 해박한 성경주석서도 없었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부활메시지 자체였습니다. 메신저(messenger)가 곧 메시지(message)였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부활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삶 전체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martyr;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로도 번역됨)으로 살다가 별이는 잔치입니다. 그것은 “살기 위하여”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죽는” 모험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온 몸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7교구 성도들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고후 4:16) 멋진 부활 인생 누리셈! Happy Easter!

8교구 김현령목사



지난 고난주간을 전후로 저희 교구의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야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낸다’고 말하며 잘 참아내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보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8교구와 30CUP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English Ministry pastor Mike Ra



To the beloved members of the English Ministry. I thank God every time I think of our fellowship in the Lord. Hehe, this greetings sounds like the beginnings of one of Paul's epistles. Yet God has placed in my heart this warm affection for you all. Our times of worshipping God have been priceless to me, and both the laughter and tears that we've shared in our various activities I would not trade for anything. Your warm and unwavering support for me has been my strength through difficult trials. I have been most blessed by seeing God work through your lives for His glory. Your faith, your hope, and your growth in the Lord is living proof to me that God is alive and working actively in His church today. I know that you are not perfect, and I will be the first to admit that I have my share of faults and inadequacies. But let us not waver in placing our hope in Christ alone, and by faith may we live every day to bring glory to His name. To Him be all praise and glory forever.

알려드립니다

방과후학교 바이올린반 신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바이올린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바이올린반은 매주 주일 2시부터 3시까지 교회의 2층수련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현재 14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천정희집사 017-584-4383



제5여성교회 "살롬의 집" 방문

제5여성교회는 정신지체자를 위한 시설인 '살롬의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오는 9일(월)에도 오전 9시30분까지 주님의 교회 로비에 모여 '살롬의 집'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제5여성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천정희집사 017-584-4383

Misson 함줄함줄,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나비잠과 꽃잠

매섭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성큼 다가온 요즘, 나른한 춘곤증 때문에 낮 시간에 많이 졸리시죠?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잠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기가 사랑스럽게 자는 모습을 잘 묘사한 말로 '나비잠'이 있습니다. 나비잠은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입니다. 다음은 '꽃잠'입니다. 꽃잠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 든 잠"으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꽃잠이 들었다' 처럼 씁니다. 다른 뜻은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의 잠'입니다.

이정에 기자

봉사부에서 봉사는 예배와 더불어 보람을 찾는 일



새벽부터 시작된 봉사부 커피 봉사가 끝난 3월 18일 주일, 봉사부원들은 오랜만에 남한산성의 '청수장'을 찾았다. 강진식, 김춘자 집사가 반갑게 맞이할 때 작년 봉사부장이었던 김한중 피택장로는 숯불에 꺼떡돼지를 굽고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 컵 닦을라 주전자를 나를라 봉사팀 선수(2)들은 식당에서 제공하는 국수 한 사리 마파람에 계란감추듯 먹고 가설무대가 철거된 로비를 빠져나와 꾸불꾸불거리는 남한산성 길을 가족을 대동하고 갔다. 냄새가 구수하다. 침이 고인다. 시간이 되니 오랜만에 봉사부 식구들이 모였다. 감칠난 맛은 셀러드였다. 아마도 양배추에 마요네즈와 요구르트를 넣고 콩가루를 듬뿍넣은 셀러드는 새콤 달콤 고소콤

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음식을 먹은 후, 한형석 집사(봉사부장)는 봉사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봉사부원 여러분이 웃으며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다”면서 봉사부에서 봉사하는 것이 예배와 더불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호길 장로는 “본교회의 장점은 반석 위에 샘물이 흐르는 것 같아 가뭄이 들어도 물길이 줄어들지 않고 홍수가 난다고 물길이 늘어나지 않은 여일(如一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담임 목사님 부재기간이 8개월이 넘어가는데 교회 어디 한 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리느냐”고 반문하며 몸으로 봉사하는 봉사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정권집사(총무)는 “이러한 모임을 자주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교제를 통해 봉사부가 화합되고 많은 교우들이 봉사부에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환경강좌2〉 천연비누 및 자연 화장품 만들기



환경강좌 두 번째 시간이 3월 28(수)일에 열렸다. 이경자, 이승원(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명밥상위원) 두 명의 강사로 하스 삶을 위한 핸드메이드 레몬스킨, 마늘스킨, 영양크림, 천연비누 만들기를 강의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자연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 속에 직접 만들어 보며 대화를 나눴다. 기독교

인들은 자연이 파괴되는 사회적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해서 만드는 삶, 내가 배운것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나눔의 삶도 느껴본 시간이었다.

*천연비누를 만드는 것은 여가선용과 좋은 취미 생활이 되며 또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이 될수 있다. 천연비누는 화학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물에 녹으면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천연비누를 만들어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주위의 사랑도 받고,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게 되면 일석 3조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형섭 기자

영어예배사역팀 2주년 기념

4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영어예배부의 2주년 기념행사가 1층 Annie Hall에서 열린다. 나현수 전도사의 설교를 비롯해 팀원들의 찬양, 간증, 드라마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순서들이 펼쳐진다.

2005년 4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EM(English Ministry:영어예배사역팀)은 팀원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성도들 서로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지금은 주님 안에서 영적가치를 추구하는 5~6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주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찾아오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팀원들 모두가 미

래의 복음 전파자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각처로 퍼져나갈 잠재적 선교사역자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의 사절로서 세계 각지로 발걸음을 옮겨 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의 성도 모두를 2주년 감사예배에 초대한다. 특별히 2주년 감사예배는 영어-한국어 통역으로 이루어진다.

기사제공: 최종업(영어예배팀)



죽다 [die]란 뜻이에요
양손의 엄지를 세워 옆에서 놓으면
죽다 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올해 첫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기 위해 49명의 세례입교지원자들은 지난 3월 4일부터 교육에 참여했다. 기독교전반에 관한 4주간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지난 3월 25일에는 세족식에 참여했다.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따라 진행된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세례문답식에 참여했다. 교회 2층 수련실에 5개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당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례입교지원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부활절인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이다. 오후 4시에 중예배실에서 교육과 문답을 마친 49명의

세례입교준비자들이 참여해 세례식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세례를 담당하는 정희성 목사의 주님의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배풀고 가족과 구역식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쁨의 잔치로 진행될 것이다.

기사제공 : 박철수(세례사역팀)